

“친환경 농업 생태계 복원...토하가 돌아왔다”

영암군 학산천 일원서 21일 ‘유기농·토하축제’ 개최 벼는 생태탐방과 전래놀이·떡메치기 등 전통체험도

“정정 학산천으로 새비(토하) 잡으러 오세요.”

친환경 유기농업으로 생태계가 복원돼 사라졌던 토하가 돌아온 영암군에서 ‘유기농·토하 축제’가 열린다.

영암군에 따르면 학산면 학산초등학교 인근 유기농 벼논과 하천 일원에서 21일 ‘정정 학산천으로 새비 잡으러 가세!’라는 주제로 유기농·토하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친환경 유기농 벼농사를 짓는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최영만)에서 주관한 민간주도형 축제로 올해로 네 번째다.

2015년 가을,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학산천에서 토하잡기를 했던 것을 계기로 시작된 축제는 2017년부터 영암군의 후원을 받아 도시 소비자들을 초청해 열리는 마을 축제로 자리 잡았다.

축제를 통해 친환경 유기단지를 비롯한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건강한 농산

물을 알리고 있다.

이번 축제에서는 유기농 벼논과 학산천에서 토하 등 각종 서식물을 잡는 생태탐방과 자연환경 사진전 등 친환경 농업을 통해 살아나고 있는 생태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학산천에서 잡은 토하로 만든 젓갈과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홍보·판매하는 장터를 운영하고 농경문화를 느낄 수 있는 전래놀이, 타작마당, 떡메치기 등 다양한 전통체험을 진행한다.

마을주민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노래자랑 한마당을 운영하는 등 프로그램은 한층 풍성해진다.

최영만 축제추진위원장은 “친환경 유기농법을 통해 고품질의 유기농 쌀 생산뿐만 아니라 벼논과 하천에 투구새우와 토하가 돌아올 수 있는 생태계를 보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오는 21일 영암군 학산면 학산초등학교 인근 유기농 벼논과 하천 일원에서 ‘정정 학산천으로 새비 잡으러 가세!’라는 주제로 유기농·토하축제가 열린다. 지난해 토하 잡기 체험행사 모습. (영암군 제공)



강진군 청정 햇살 담은 포도 본격 출하 캠벨얼리·거봉 등 다양...신품종 샤인머스켓도 수확 한창

청정지역 강진군에서 지난 가을 제철과 일인 포도가 무르익어 출하를 시작했다.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풍부한 일조량과 청정지역인 장점을 이용해 소비자 기호에 맞는 신품종 보급 확대 및 관련 재배기술과 시설지원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현재 11농가가 총 4.5ha에서 캠벨얼리, 거봉 등 다양한 품종의 포도를 재배하고 있다.

기술교육 등 농가들의 다양한 노력과 함께 최고 품질의 포도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신품종 샤인머스켓 육성에 나서 성과를 내고 있다.<사진>

샤인머스켓은 일명 망고 포도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 포도보다 알이 굵고 당도가 높는데다 씨가 없어 껍질째 먹는 청포

도다.

특유의 맛과 향으로 최근 동남아, 중국 시장에 진출, 수출 주력 포도로 부상하며 국내에서 소비 수요가 늘어나는 등 포도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도암면에서 1농가가 시설하우스 재배로 소득을 올리는게 전부였던 것이 성전면 등 5농가 2ha로 확대됐다.

도암면 만덕리 포도농장 홍정용씨는 “포도 소비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포도 산업이 약화돼 농가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하지만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신품종 확대 재배를 통해 농가 소득을 창출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전국 보건교육 경연대회 영암군보건소 대상 수상

영암군보건소가 최근 개최된 제18회 전국보건교육경연대회에서 보건교육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여수에서 개최된 이번 경연대회는 전국 시군구 보건간호사, 대학교수 등 4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각 시도를 대표해 보건교육 발표 분야와 홍보 분야에 18개팀이 참가해 경연에 나섰다.

전국보건교육경연대회는 전국 지자체 보건간호사들의 보건교육 역량 강화와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문화 확산 및 건강 증진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보건교육부문 전남 대표로 참석한 영암군보건소는 치매예방프로그램으로 ‘당신의 기억은 안녕하십니까?’라는 보건교육 시연으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영암군은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치매예방교육을 보급 실시하고 있다.

이국선 영암군보건소장은 “이번 보건교육 경연대회를 통해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건교육 방법을 공유해 지역 주민에게 보건교육을 실천하는 한편 지역민의 건강 증진의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추석 연휴 온 가족 장흥으로 힐링여행 오세요”

장평명품호두축제·우드랜드 산책코스 등 볼거리·먹거리 풍성

“추석 연휴에 온 가족이 함께 장흥에서 힐링하세요.”

장흥군에 따르면 군은 추석연휴 기간 장흥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크고 작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했다.

연휴가 시작되는 12일부터 3일간 장평명품호두축제 센터 광장에서는 ‘제8회 장평명품 호두축제’가 열린다.

올해 호두축제에는 난타공연, 풍물놀이, 차밍댄스 등 신명나는 공연무대와 호두 전시판매장, 노래자랑 등 볼거리도 풍성하다. 지역 먹거리를 맛볼 수 있는 향토음식관은 물론, 호두과자, 잣두콩 차, 블루베리 주스 등 지역 대표 특산품을 재료로 한 먹거리도 마련됐다.

우드랜드에서 억불산 정상에 이르는 등

산로<사진>에는 3.7km 길이의 ‘말레길’이 설치돼 있어 가족 산책코스로 제격이다. 말레길은 우드랜드 안에 조성된 트레킹 코스로 이를 이용하면 노약자와 장애인들도 어렵지 않게 억불산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에선 한우, 키조개, 표고버섯 등 장흥을 대표하는 세 가지 특산물을 조합해 구워먹는 장흥삼합을 즐길 수 있다.

정남진천문과학관과 정남진물과학관 등도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는 정상운영해 가족 단위 관광객을 맞을 계획이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강진 한국민화뮤지엄 ‘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공모 선정

강진군 청자촌에 위치한 한국민화뮤지엄이 (사)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한 ‘2019 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한국민화뮤지엄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일반 가정과 다문화가정이 함께 서로의 문화를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한다.

운영기간은 9월부터 11월까지이며 참여대상은 일반 가정 및 다문화가정, 다른 나라의 민속 회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학생단체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매일 30명 내외의 참가자에게 박물관 관람과 체험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장흥 심천공원 오토캠핑장·정남진 리조트 재개장

장흥군 심천공원 오토캠핑장과 정남진 리조트가 새 단장을 마치고 재개장했다.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심천공원 오토캠핑장과 정남진리조트 시설에 대한 시설물 보완과 노후시설 교체 작업을 실시했다.

군은 캠핑장 내 보안등을 설치, 데크 및 화장실 보수, 정남진리조트 창호공사 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손님맞이에 나섰다.

1급수 탐진강을 마주한 캠핑장은 토굴 하우스 3동, 카라반 9동, 캠핑데크 39면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종합물놀이장, 풋살경기장, 농구장, 바닥분수, 인공폭포, 공동편의시설 등 부대시설도 부족함이 없다.

사용료는 비수기 평일 기준 카라반은 9만원(주말 12만원), 토굴하우스는 11만원(주말 14만원), 캠핑데크는 2만원(주말 3만원)이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